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지역경제총괄과 박태성 과장(2110-5591), 김형석 사무관(5593)
행정관리담당관실 박종원 과장(2110-5241), 박석용 주무관(5149)

지경부, 올해의 지식경제人(김형석 사무관) 선정

– 산업단지가 공부하며 일하는 場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:홍석우)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 보상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올해의 지식경제인을 선정하여 12.30(금) 월례 조례시 발표·포상함

□ '11년도 올해의 지식경제인에는 지역경제총괄과 김형석 사무관이 선정됨

○ 김 사무관은 산업 단지내에 대학들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·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함.

- 지난해까지는 산업단지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시설 구역에는 대학 등 교육관련 시설이 입주할 수 없었으나 김 사무관의 노력으로 산업시설 구역내에도 대학 캠퍼스가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

  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'11.7월), 시행령('11.10월) 개정

- 그간 대학캠퍼스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것은 산업기술대가 유일했으나, 근거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('12년) 반월·시화, 구미·왜관, 군산·새만금 공단에 13개 대학이 신규 입주할 예정임

  * (반월·시화 공단) 산업기술대, 건국대, 신안산대, 안산1대학
  (구미·왜관 공단) 영진전문대, 금오공대, 경운대, 구미1대학, 폴리텍Ⅵ
  (군산·새만금 공단) 군산대, 전북대, 군장대, 호원대

- 또한 산업단지내 대학입주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전년대비 약 2배 가까이 증액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음

  *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: ('11년) 240억원 → ('12년) 420억원

○ 이러한 김 사무관의 노력으로 단지내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있는 선취업-후진학(先就業-後進學)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

○ 나아가 산학융합지구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집적함으로써 연구소-대학-기업간 산학일체형 산학협력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산업단지가 단순 생산기능 중심에서 벗어나, 생산-연구-교육 기능이 복합되는 공간으로 변모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

□ 김 사무관은 산업단지내에 문화, 복지, 교육, 편의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청년층에 매력적인 복합 산업공간을 조성하는 QWL(Quality of Working Life) 사업의 담당 사무관(행시 49회)

○ 김 사무관은 산업단지에 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, 교과부·국토부·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·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힘

○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의 유명 산업 클러스터처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함